

# 김용민브리핑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b>알싸한홍어</b>	alssahan.co.kr
중고차 사고 팔 때엔	1800-9538
<b>조광래중고차</b>	cafe.naver.com/ckrca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b>정성농장홍삼</b>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b>비타샵</b>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b>미공장사랑</b>	jangsarang.com
맛집 창업전문컨설팅은	010-4826-7784
<b>몬스터셰프</b>	facebook.com/monstershef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b>풍무양고기</b>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b>내피알</b>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b>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빌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b>이담채김치</b>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b>메이드바이어스</b>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b>전창걸의새싹망고차</b>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b>좋은사람과플라워</b>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b>월7천원원전자보험카페</b>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b>와우전복</b>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술에 필발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b>연지연곰탕</b>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최재경 할애비가 와도...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최재경 씨가 새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검찰 출입 경력이 제법 된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분한 평가였지만 공통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우병우보다는 고단수다, 또 검찰과 언론계에 상당한 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가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을 때 BBK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이명박 씨의 대통령 당선을 이끈 1등 공신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도움을 구하러 온 박근혜에게 이명박이 "뭔가 확실한 신뢰의 징표가 필요하다"며 새 민정수석을 자신이 인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최재경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권력의 추가 최순실에서 최재경으로 이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부상합니다.

무리한 추측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씨가 하야하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가장 크게 낭패 볼 사람을 꼽아보면 마냥 억측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말고도 '숨길 것이 많은' 이명박 씨가 바로 그러할 테니까요. 최재경의 발탁은 그래서, 이명박근혜 연정으로 비춰질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낭패 볼 또 다른 주체를 꼽아볼까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대로 무력하게 야권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존재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환상을 강조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로부터 권력을 회수해서 친조선일보 친이명박계 인맥이, 남은 1년 4개월 정도 대리 집권하고, 벌여놓은 시간만큼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밑바탕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은 거국 중립내각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경 씨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며 최병렬의 아들인 TV조선 논설주간인 최희준 씨와는 당연히 사촌지간, 조선일보 기사를 지낸 친이명박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도 사촌지간입니다.

박근혜 반대 그 다음 대안을 조선일보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검찰도 검찰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참된 권력을 찾는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요구가 조선일보 검찰 권력이 간판만 바꿔 집권하는 헬조선의 연장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말 광장을 뒤덮은 박근혜 하야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유효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명입니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 10월 31일(월) 1부 | '최재경 발탁'은 'MB의 귀환'?

[오프닝] 그러거나 말거나 '박근혜 하야' 요구는 강력하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전 최태민 측근 "박근혜, 최태민·최순실 주술에 홀렸다"
- "최순실, 미르·K재단 상황 박근혜에게 수시 보고했다"
- "윤병세 바지 수선? '사드'에 대해 전혀 인지한바 없어서"
- 조선일보 "거국내각 조속히 전면에서 나서야"에 숨은 꼼수
- 김종인 좋다 말았네... '총리 기용' 건의받은 박근혜 썩소
- [뉴스듣기능력평가] 주술사 소재 영화 '사랑과 영혼' 관련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대한민국 대망신...외신, 희대의 '주술사 정권' 집중 보도
- 중국 "외교기조 오락가락 혹시 그것때문?" 조롱 일색
-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 이제야 이해되는 박근혜 황당 연설
- [월요 경제학] 체인이론과 도미노이론 : 보수 어찌할꼬
- [공화국 논평] 시신탈취·물대포 포기한 경찰에 대한 조치

최순실 망령 통치 종지부 찍나

국민일보 최태민·최순실 주술에 홀린 박근혜

국민일보가 전기영 목사와 인터뷰를 했다. 전기영 목사는 1980년대부터 영세교 교주 최태민과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 최태민이 총회장을 했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합총회의 현재 총회장이다. 전기영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태민의 관계는 육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박근혜씨에게 최태민이 접근한 것이다. 당시 최태민은 육영수의 영혼이 빙의됐다면서 표정과 음성을 재연했고, 그것을 보고 놀란 박근혜 씨는 기절하고 입신(入神)을 했다고 한다. 이후 최태민과 그의 주술을 이어받은 딸 최순실, 사위 정윤희 등의 주술에 박근혜가 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술을 모르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崔, 차에 미르·K재단 상황 수시 보고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 씨가 2박 3일 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중요한 지점이 이거다. 고영태 씨는 최순실이 직접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챙겼으며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보고서를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한 최순실과 박근혜 씨는 전화를 수시로 했다고 한다. 고영태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씨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을 직접 챙기며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와 참모들에게 재단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이다. 서서히 드러난다. 이게 최순실 게이트며,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다.

중앙일보 사드 배치도 흑시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 배치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드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비선 실세들은 국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접촉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배경에는 비선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도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다는 설이 파다하다. 윤병세의 바지 수선, 이것도 실은 윤병세 모르게 사드배치가 결정된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거국중립내각 논란

수상했던 朝鮮日報 속내 드러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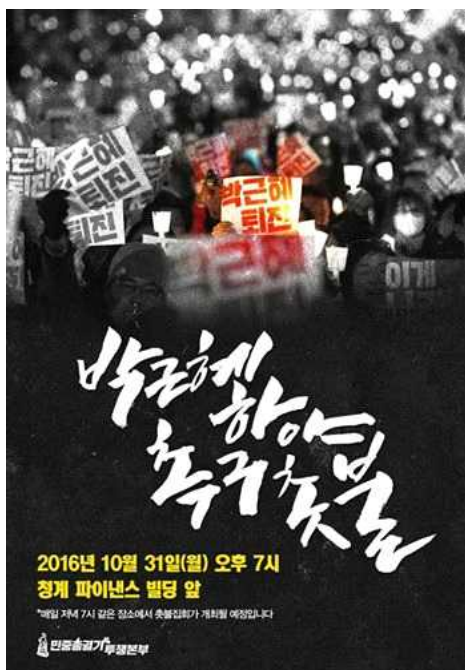
지난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와대는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태 해결을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최재경이라는 친조선일보 친이명박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이런 와중에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되면, 즉 조선일보와 가까운 인사들로 교체가 된다면, 조선일보로서는 이만큼 좋은 그림이 없다. 잊지 말자. 박근혜 조선일보 이명박은 한 몸임을.

중앙일보 책임총리 쫓던 김종인 지붕만 쳐다봐

그동안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책임 총리제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책임총리로 추천했다. 김용갑 씨도 원로 간담회에서 김종인 총리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그러나 박근혜 씨는 얽게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김종인 전 대표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권을 주면 해보겠다고 했다. 김종인 씨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힘겨레 말처럼 쉽지 않아

어제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책임총리제는 이 맥락 속에 있는 거다. 하지만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야당 반대는 차치하고 여당 내부부터 셈법이 복잡하다. 우선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 씨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장악했다. 그 친박계가 자신과 결이 다른 거국중립내각과 대화를 한다?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봉착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씨가 거국내각 구성안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최순실한테 물어봐야 알겠지.



진실 은폐하려는 또 다른 손

東亞日報 '최순실 태블릿 PC', 독일에서 왔다

JTBC 보도에서 등장한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박근혜 씨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안보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해당 태블릿 PC가 독일에서 문자를 수신한 흔적이 발견됐다. 메시지 수신 시간 또한 최순실이 독일에 도착한 때와 일치한다. 이로 인해 해당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최순실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순실이 직접 갖고 있던 것은 아니더라도 최순실과 함께 독일에 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최순실은 이 태블릿PC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崔 귀국 전후 증거인멸·짜 맞추기 시도

어제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6일 대포폰으로 보낸 것이었으며 통화도 시도했다. 이 대포폰 번호는 안종범 수석이 미리 '안전한 번호'라며 알려준 번호였다. 27일 검찰에 출석하는 정현식 전 사무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와대의 증인 회유와 함께 증거 인멸 시도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케이스포츠재단의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었으며 최순실 소유 회사의 이메일 계정도 전면 폐쇄된 것이다. 최순실의 귀국을 앞두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 움직인 것이다.

한국일보 일사불란한 수습 움직임, 각본 있나?

지난 25일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국민사과를 기점으로 해외로 잠적했거나 입을 닫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순실이, 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귀국해 검찰에 자진출두 했다. 차은택 또한 귀국 의사를 밝혔으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조인근 전 연설비서관이 나타났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소유자인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도 검찰에 자진출석 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의혹이부풀려졌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는 최순실이 몰래 귀국을 한 뒤 잠적했다. 그러나 2달 가까이 거주해온 독일이 아닌 영국에서 귀국한 것은 기획입국 가능성에 무게를 실게 한다.



이처럼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에 대해 누군가가 막후에서 사건 수습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노한 보수 지지자들

東亞日報 反정부 시위에 나선 보수 지지자들

그동안의 실정에도 대통령 박근혜 씨를 감싸왔던 보수층이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을 지켜보며 충격과 배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들까지 정권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국촛불대회에도 "살다가 시위에는 처음 나왔다"라고 밝힌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 중앙당과 각 의원실에도 항의 전화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을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

한겨레 2002년 '미래연합' 창당 최순실이 관여

대통령 박근혜 씨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미래연합'을 창당했다. 이 당시에도 최순실은 '소장님'으로 불리며 '문고리 4인방'을 종 부리듯 했다고 한다. 문고리 4인방 가운데 고이춘상 보좌관을 제외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어제 경질되기 전까지도 박근혜 씨의 핵심 측근으로 불렸다. 또한 '미래연합' 창당 이후에도 최순실은 사무실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지만, 당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자 얼마 뒤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도 역대 급으로 무능

東亞日報 현정부 가계빚, 盧·MB정부 합친 수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어서 내년 말에 최대 1540조 원 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가계빚은 496조 원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10년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액을 뛰어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여기에 더해 부동산 거품까지 꺼진다면 미국처럼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경고한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최순실 사태와 노예 민주주의”

요즘 최순실은 공민왕 시대의 신돈이나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에 곧잘 비유된다. 그러나 신돈과 라스푸틴은 ‘왕이 곧 국가’였던 봉건시대의 인물이다. 최순실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최순실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봉건시대 군주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폭로한다.

토론은커녕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쓰기에 여념이 없는 장관들, 대통령의 수족에 불과한 청와대 인사들, 대통령의 ‘상머슴’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 권력자의 한마디에 즉각 수십억원을 갖다 바치는 재벌들, 부당한 압력에 무릎 꿇고 이득을 취하는 교수들-이들의 행태는 주인 앞에서 설

설 기는 노예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공화국에서 ‘지도층 인사’란 자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권력의 노예였던 것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선거를 치르고, 법치를 외친다 해도, 그건 허울뿐이다.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는 ‘노예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노예 민주주의’ 사회에선 선거도 민주주의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그건 기실 노예들이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새 주인을 뽑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문제는 최순실이 아니라 민주주의이다.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제적 민주주의로, ‘노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10.29 시민촛불 마치며

민심은 천심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분노한 민심은 이후 행진에서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가지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투쟁본부는 행진을 하던 도중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진, 하야의 목소리로 가득한 광화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 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1월 1일부터 매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11월 5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2016년 민중총궐기’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31일 오후 10시 현재

<p><b>서울</b></p> <p>매일 7시,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 11월 5일 광화문 대규모 촛불</p>	<p><b>충북</b></p> <p>청주 11월 3일, 11월 10일 18시 30분 성안길입구 제천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촛불집회</p>	<p><b>강원</b></p> <p>원주형성시국대회 : 11월 5일(토) 16시, 강원감영 앞</p>
<p><b>인천</b></p> <p>매일 7시 시민문화제</p>		<p><b>대구</b></p> <p>매일 7시 촛불집회 한일극장 11.4(금) 7시 집중촛불 한일극장 11.5(토) 6시 시국대회 한일극장(예정)</p>
<p><b>대전</b></p> <p>매일 7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 11월 5일 16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p>		<p><b>울산</b></p> <p>매주 수,금 18:30 롯데백화점 앞</p>
<p><b>충남</b></p> <p>충남시국대회 11/2(수) 18시 천안 아우리 아산 수요일 온양온천역, 18시 30분 청양 월요일 청양도서관 앞 분향소, 18시 당진 목요일 당진시청 앞, 19시 홍성 목요일 홍성북개주차장, 19시 30분 논산 금요일 논산오거리 분향소, 19시 30분 서산 일요일 서산군청 앞 로터리, 19시 30분 공주 11월3일 목 우리은행 앞, 19시</p>	<p><b>제주</b></p> <p>11월 5일 19시 제주시청 부근</p>	<p><b>부산</b></p> <p>매일 19:30 서면 태화</p>
<p><b>전북</b></p> <p>매일 18시 30분, 전주 풍남문광장 촛불행진(금요일 집중) 전북 법도민 총궐기대회 11월5일 17시, 전주 오거리 광장</p>	<p><b>경남</b></p> <p>진해 : 매일 4:30-6:30 인민터널 입구 선전전 수요일 집중행동 (대저보쓰기, 거리행진) 양산 : 매일 6시 촛불(이마트 후문) 사천 : 매일 5시30분-6시30분 현수막 선전전(사천올림픽) 금요일 촛불행동(삼천포 운동장사거리) 김해 : 월,수,금 19시-20시 김해시민촛불(외동 중앙사거리) 11월 5일 6시 김해시민촛불 집중 집회(외동 중앙사거리) 창원 : 매일 6시 30분-8시 촛불 및 캠페인(한서병원앞광장) 11월 4일 오후 6시 경남시국대회(창원정우상가) 진주 : 매일 캠페인 / 11월 5일 진주시국대회</p>	